

독자투고

명절이 고달픈 여자들

김남순/서울시 구로구 구로5동

5년째 시댁에서 명절을 보내고 있다. 명절이 모든 사람들에게 즐겁다는 말은 사실일까.

물론 명절에 그간 못 만났던 친척들이 모이고, 다함께 모인 자리에서 조상의 추억을 되새겨 본다는 것은 호뭇한 일이다. 하지만 여자들에게 명절은 고달프다.

명절 전날부터 차례 준비하라, 손님 맞으라, 다과와 식사 준비하라 눈코 뜰새가 없는 것이다. 올해 추석에도 역시 마찬가지였다. 우리 집 경우에는 손님이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힘들고 부담스럽게 여겨지는 게 명절인데 어찌라.

물론 남자들은 이와 정반대 일 것이다. 귀중한 연휴에 푸짐한 음식, 그리고 모처럼 만난 반가운 친척들과 바둑도 둘 수 있으니 말이다. 특히 평소에는 집안 일을 잘 도와주던 남편들도 친척들의 눈이 무서워 부엌 근처에는 얼씬도 안한다.

그러나 무엇보다 가장 명절이 가슴 아프게 느껴졌던 것은 친정을 생각하면서였다. '친정에서는 내 부모들을 모시는

차례가 준비되는데 나는 가볼 수가 없구나'를 생각하니 서글퍼지는 것이었다.

그리고 우리 부모 제사 역시 딸 아닌 며느리에 의해 마련되고 있구나를 생각하니 마음이 심란해졌다.

내 올케들이나 나나 20년을 훨씬 넘게 친정 부모님들과 살아왔고, 내 어머니와 아버지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조상의 계보를 따져 올라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었다. 그런데 결혼을 하고 보니 갑자기 내가 모시고 추억해야 할 조상이

바뀌어 버린 것이다. 한동안은 이런 상황에 도저히 적응할 수가 없었다. 몸은 시댁에 있되 마음은 친정에 가 있는 이 혼돈은 나 혼자 느끼고 있는 걸까?

명절에 더 바쁜 여성들, 명절에 심란한 여성들. 그래도 매스컴에선 온통 명절의 즐거움으로 가득하다.

아이들과 남자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즐거운 명절을 보낼 수 있는 바람직한 대안은 없는 것일까?